

2019 년 12 월 31 일 "(송구영신예배) 복음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사람"(골 1:27-29)

<도입>

예수님의 복된 소식에 힘입어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 내도록 돕기 위해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살피면서 2020년에는 이 목표의 길 위에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온전한 사람

영어 번역: mature, perfect, complete. 한글로는 완전, 온전하다고 씀.
원어의 뜻: '목표에 도달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백성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열어 주셨으므로, 오늘 교회가 애써 수고하는 본분은 이 목표를 향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 복과 다스림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 (1) "복을 베푸셨다" 사람은 복을 받아 생육, 충만, 번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조계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조화를 이룬 인류의 큰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 (2) "정복하라. 다스리라" 인간이 받은 kingship 왕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시작한 아담의 삶에 대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 (1) 2:15 에덴 동산에 '두시고' -> 안식하게 하셨다는 뜻. 즉 7 일 짜 완성된 창조를 누리신 안식의 축복을 인간에게도 그대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안식 ≠ 쉬, but 누리 -> 복 받음의 단면
- (2) 2:15 에덴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돌보고 섬기며 가꾸고 지키고 확장하라는 뜻. 하나님의 대리자 -> kingship 의 단면
- (3) 2:19 이하. 동물들의 이름 짓기 -> 다른 피조물에 대한 주도적인 위치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피조계에 대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kingship 의 단면.

그러나 타락 후에 이 모든 축복을 잃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돌보고 섬기고 지키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피조계를 다스리는 일에도 실패하여 악용하든지, 무관심합니다.

[3] 타락의 결과를 어떻게 회복?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원래 주신 소명과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고, 노아 홍수 후에 새 땅(에덴을 상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은 인간의 참된 복과 다스림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메시지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러 역사 속에서 인간의 참된 복과 권세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예수님마저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숙하여 이를 복과 권세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분 안에서 인간이 부여 받았던 복과 권세를 회복하고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벧전 2:9** 에서 이런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 고 유진 피터슨 목사의 글을 인용합니다.

“모든 참된 일, 모든 진정한 일은 왕업(복과 권세가 담긴 일)에 포함된다. 일이란, 일을 통해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활동이다. 주권자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이루어 내며, 사물과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으로부터 희생자들을 구해내며, 정죄 받고 저주 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그 임재를 통해 대지와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영예를 부여하는 일 등을 한다...

모든 진정한 일에는 섬김과 통치라는 두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통치는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며, 섬김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다. 모든 선한 일은 참된 주권적 통치의 발현이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장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섬김이다”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p.49-50)

이 글을 참고하여 2020년에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할까를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큰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작성한 목양 계획을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 안쪽 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떤 점의 온전함을 생각했습니까?
2. 성경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란 복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누릴 복과 가져야 할 권세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봅시다.